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68	210	504	21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과 함께 주여)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제 1독서 | 예레미야 38,4-6, 8-10

화답송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좌)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우)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좌)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우)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 2독서 | 히브리서 12,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49-53

오늘의 묵상 |



## 오늘의 독서와 복음

### 제 1독서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  
 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  
 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  
 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  
 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  
 어라."

###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  
 다.

###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 <교부의 성경 주해>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불이 인류의 구원과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을 이 불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구원의 복음이요 그 계명의 권능입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복음은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불을 질러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으로 타오르게 합니다(로마 12,11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과 같은 성령의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면, 어디선가 낭랑하고도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두 번의 종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아내를 향한 짝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 한 남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작품이 끝나고 뒤풀이 장소였는데,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을 뚫고 한 남자가 스윽 제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경호 씨! 경호 씨도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광대승천 제네시오'에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 남자는 바로 양주호 베드로 형님!

'광대승천 제네시오'는 가톨릭 신자인 배우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받은 순간, 제 귀에서는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초대가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하마터면 형님을 안아 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슬픈 일이 생길 때, 고민이 있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저는 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물론 제 곁에는 아내와 아이들, 좋은 선후배와 친구들이 있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며 영혼의 동반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 안의 모든 울음을 토해 내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죽음을 이해하기에도, 또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울어도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실감과 슬픔이었지만, 우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 하도 울면 감정의 기억이 몸에 새겨지는 모양입니다.

슬픔을 연기할 때면 제 몸은 그때를 기억해서 인물과 장면에 저절로 젖어 듭니다. 슬픔에 싸인 남자의 표정이 어떤지, 목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온몸은 어떻게 떨리는지 굳이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제 몸은 자연스럽게 표현해 냅니다.

어떻게 보면 재연해 낸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날의 질문이 지금은 '아마도...'라는 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의 슬픔은 연기가 되고, 나의 연기는 누군가의 공감이가 되는 게 아닐까? 나의 슬픔이 연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희망이 된다면,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광대승천 제네시오'에서 배우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요즘 하느님의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오 성인은 무대 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네시오 성인처럼 무대에 오를 때마다, 또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제 연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공지 사항

### 1. 여정 '시즌 5' 모임 안내

이번 '여정'은 '영화 및 다큐멘터리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영상을 각자 시청 후, 온라인 나눔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4편의 영상, 약 1달 반 정도의 기간) 관심이 있으신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 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8월 27일(수)까지
- 시작 일시: 9월 3일(수), 저녁 7시 (줌 온라인)

### 2. 첫영성체 후 고해성사를 위한 교리교육 안내

첫영성체를 받았지만, 아직 첫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해성사(Sacrament of Confession) 교리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리 시간: 주일 1:30PM~2:20PM). 아이들 교리교육을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8월 30일까지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다음주 간식 나눔 안내

다음주 주일 미사 후에는 교육관에서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8월 10일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45명
8월 15일	유아·청소년: 4명	성인: 23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17일)	마르코반
다음주 (8월 24일)	마태오반

## 가을이 오면

- 김용택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에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은총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 | 봉헌금 & 교무금 | (8월 9일 ~ 8월 15일)

봉헌금	\$ 275				
교무금	\$ 570				
구민식	권묘순	김재호	남궁영근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한상지				

#### | 기도 지향 |

- \* 임양녀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